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마음자리' 를 깨우치자

교황, 선원들에 위로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상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선원들을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선원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서 그들을 위로했다. 교황은 "최근 몇 달 간 당신들의 삶과 업무는 큰 변화를 겪었다."며 "장기간 가족, 친구와 떨어져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 생활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잊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인기택 사무총장은 전날 코로나19로 선원 교대가 어려워 일부 선원의 경우 15개월간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한 채 해상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사노동협약은 최대 11개월까지만 선내 체류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운수노련(ITF)은 해상에 있는 선원들에게 더는 업무를 강요하기 어렵다며 해결 방안을 촉구해 왔다.

집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월서연합감리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 어린이 학교가 6월 24일(수)부터 28일(일)까지 집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Virtual VBS)를 운영한다.

오후 6:10 말씀(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열려붙은 성에서 믿음의 물건을 하루에 하나씩 모두 다섯 개를 모두 찾으면 열었던 성이 따뜻해 진다는 설정 과제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등록비는 20달러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562) 500-8616
HABARAGIHAN@YAHOO.COM



정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은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라면 불쌍한 중생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고 잡도 지지 않는 자비심이 있게 됩니다.

오직 남을 위해 주는 '자비심', 어두움이 없는 '밝은 지혜', 중생들을 모두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내고야 말겠다는 '위대한 원력', 이것이 '깨달은 이'의 마음이고, 불보살의 마음이며, 무소득의 경지입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야겠다, 재산을 모아야겠다, 미인을 얻어야겠다, 권력을 얻어야겠다." 하는 욕망이 일체고 (一切苦)를 가져옵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석을 한 개 선사 받았다고 하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잡니다. 도둑이 언제 담을 뛰어 넘어 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택시를 타고 가도 안심이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안심이 안됩니다.

무엇을 얻었든지 어떤 미인과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미남자와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하고 좋아하는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싶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소득에 관심이 없으면 잠이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항상 편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도 구애될 것이 없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생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진실로 부처가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도 열반도 구하지 않는 무소득의 '마음자리'를 찾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음'은 본래 구애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거리낄 것이 없는 진공과 같은 '마음', 불법을 닦아야 할 필요도 없고, 망상이 없으니 망상을 떼어내 버릴 일도 없고, 아무 데도 걸릴 데가 없습니다. 지구만한

보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내 '마음'이 걸리고 거북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얽매는 것이 재물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큰 돈을 벌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런 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귀를 찢게 됩니다. 세계를 다 차지해서 그 번뇌 덩어리를 맡아 잡 못자고 '마음'만 흔들리는 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미인을 몽땅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다 귀찮고, 미인이면 미인이지 육체가 아닌 '나'에게 무슨 상관이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행을 지키고 정진(精進)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마음자리'를 깨치면 하지도 않고 안하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하면서도 안하는게 되고 안하면서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담 스님-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하버종합치과

임플란트 전문병원

전 미8군 사령관 전담 주치의

- 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Dental Medicine
-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Fellow
-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 Th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Dentistry
- 워싱턴 대학교 외래교수
- 전 Columbia 치과 병원장
- Dental Director at Carius Dental Clinic, U.S. Army (전. 용산 주한 미8군 병원장)



- 최첨단 의료장비
- 최고의 시설
- 실력있는 의사

상담/예약 714.773.9999 플러튼 1호점 / 브레아 2호점 / 부에나팍 3호점